

TiO₂

이산화티타늄시장은 여러가지 면에서 원유시장과 흡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원유시장이 7대 메이저기업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처럼 이산화티타늄시장도 5개 정도의 기업에 의해 세계적인 수급이 조절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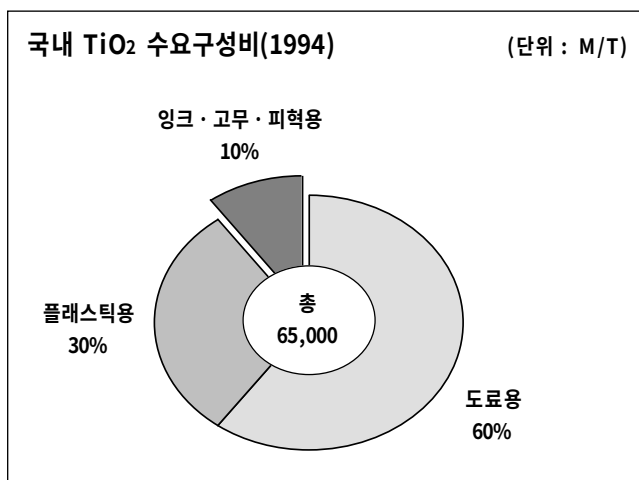
또 원유의 매장이 일부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산화티타늄의 원료가 되고 있는 티타늄광물도 오스트레일리아, 남미 등 일부국가와 지역에 한정돼 있다.

소비패턴에 있어서도 원유와 이산화티타늄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원유의 수요가 국가간 차이가 뚜렷하며, 그기준이 각국의 산업개발정도와 비례하는 것처럼 이산화티타늄의 수요량도 한나라의 경제발전정도와 맞물려 있다.

더욱이 아직까지 원유를 대체할만한 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것처럼 80년동안 사용돼 온 이산화티타늄을 대체할만한 백색안료가 발견되거나 개발되지 않았다.

이산화티타늄시장의 가장 특이한 점은 주기적으로 공급과잉과 공급부족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산화티타늄 생산설비가 장치산업으로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 기업들이 일정기간을 두고 설비를 증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페인트기업 TiO ₂ 수요현황		(단위 : M/T)			
구 분	용 도	1991	1992	1993	1994
고 려 화 학	페인트	6,800	8,800	9,000	13,000
삼 화 페 인 트	"	2,000	2,000	2,500	3,300
대한페인트·잉크	페인트 잉크	3,500 350	4,000	4,000	4,500
건 설 화 학	페인트	2,900	3,000	4,000	4,500
등 주 산 업	"	1,300	1,300	1,400	1,000
등 일 화 학	"	420	560	550	
조 광 페 인 트	"	1,500	1,800	1,800	2,000
벽 산	"	1,400	1,800	2,000	
현 대 페 인 트	"	900	1,200	1,300	
한 진 화 학	"	550	500		
조 흥 산 업	"	330	200		
대 화	"	280	80		
유 진	"	220	-		
세 모	"	220	-		
애 경	"	130	-		
삼 영 잉 크	잉크	450	300		
삼 성 특 수	페인트	400	450		
삼 일 페 인 트	"	-	2,000		



세계의 TiO ₂ 생산능력 현황		(단위 : 1000M/T)		
구 분	회 사 명	황산법	염소법	합 계
일 본	石原産業	105	50	155
	타이카	60		60
	사카이 화학	43		43
	토켄프로덕트	30		30
	古河機械金屬	23		23
	티탄공업	17		17
	富士티탄	16		18
	계	294	50	344
북 미	Dupont	0	776	776
	SCM	66	163	229
	NL	0	150	150
	KEMILA	58	91	149
	Kerr-McGee	0	101	101
	계	124	1,281	1,405
유 럽	TIOXIDE	370	80	450
	NL	126	120	246
	Bayer	150	0	150
	THANN	125	0	125
	SCM	10	85	95
	SACHTLEBEN	85	0	85
	KEMIRA	80	0	80
	TDF	0	45	45
	계	946	330	1,276
아시아·태평양	TIOXIDE	85	0	85
	石原産業	26	45	71
	SCM	0	70	70
	Dupont	0	60	60
	Kerr-McGee	0	54	54
	중 국	15	0	15
	한 국	15	0	15
	CHINA METAL	10	0	10
	계	151	229	380
기 타		226	93	319
합 계		1,741	1,983	3,724

결국 증설이후 일정기간 공급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일정시점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공급부족현상과 함께 가격폭등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증설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극심한 공급부족현상이 유발돼 가격이 폭등하고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끝없이 곤두박질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80년대 중반이후 이산화티타늄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가격이 폭등, 톤당 2400달러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신증설이 이뤄진 후 급격한 공급 증가로 92년에는 79만톤의 공급과잉과 80%미만의 공장가동률, 톤당 1550달러라는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후 이산화티타늄은 주기상으로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99년을 앞두고 94년부터 서서히 수급불균형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이산화티타늄시장은 최근 3년동안 15%이상의 성장을 해왔다.

역시 94년에도 15%의 성장이 이뤄졌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 수요는 모두 6만5000톤으로 93년대비 15% 신장했다.

이 가운데 도료용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용이 30%, 기타 잉크, 고무, 피혁용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TiO ₂ 시장 점유현황(Rutile형) (단위 : M/T,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생 산	국내공급	수 량	점유율	수 량	점유율	수 량	점유율	수 량	점유율
Dupont	한국지사	20,967	53.0	22,000	45.5	24,000	42.5	26,000	40.0
SCM	한국지사	8,308	21.0	9,000	18.6	10,000	17.7	12,350	19.0
TIOXIDE	유코무역	4,747	12.0	7,000	14.5	7,000	12.4	9,100	14.0
Ishihara	화약통상	3,598	10.0	5,000	10.3	6,000	10.6	8,450	13.0
Kerr McGee	정화무역	1,580	4.0	3,000	6.2	6,000	10.6	8,450	13.0
Kronos	헬스트코리아			600	1.3	640	1.1	850	1.0
Bayer	한국지사			200	0.4	170	0.3		
기 타				1,525	3.2	2,690	4.8		
합 계		39,560	100.0	48,325	100.0	56,500	100.0	65,000	100.0

특히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플라스틱용은 최근들어 수요가 부쩍 증가하는 등 15%의 수요신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소비구성과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북미지역에서는 전체 사용량의 50%를 페인트용이 차지하고 있으며 제지용 23%, 플라스틱용 17%에 이르고 있다.

향후 이산화티타늄 국내 수요도 선진국처럼 도료의 비율이 줄어들고 플라스틱 및 기타 스페셜티부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시장은 매년 축소돼 왔으나 94년에는 93년과 비슷한 2만톤정도에 머물렀다.

아나타제의 수요감소는 전방산업인 고무시장과 신발산업의 위축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나타제형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티타늄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저가 중국산의 물량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은 Dupont, SCM, Tioxide, Ishihara, Kerr McGee 등으로 Dupont과 SCM은 한국지사를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각각 유코무역, 화약통상, 정화무역의 대리점을 통해 국내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시장은 Dupont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해왔으나 80년대 후반부터 SCM과 Tioxide 등의 추격을 받아 그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4년 국내 시장점유율을 보면, Dupont 40%, SCM 19%, Tioxide 14%, 이시하라 13%, Kerr McGee 13%, 기타 1% 등으로 나타났다.

94년기준 국내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 수요는 도료용이 3만7000톤에 달하고, 플라스틱용은 LG화학 4500톤, 제일모직 1500톤, 한화종합화학 1800톤, 금강 600톤, 상호화성 1800톤, 일삼 1000톤, 한일도요 1000톤 등 모두 2만여톤에 이르고 있다.

이산화티타늄은 94년 4/4분기 현재 톤당 185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현물시장에서는 이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티타늄 가격은 94년 들어서면서 매분기 100달러가 인상됐으며, 3/4분기에만 30달러에 그쳤다. 이같은 가격인상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상폭에서만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가격은 국제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제외한 동남아 국가에서는 한국보다 100달러 비싼 1959달러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 2000달러, 일본 2300달러, 미국 2000달러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4년 이산화티타늄 가격인상에 따른 완제품시장으로의 파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같은 원인은 93년말 94년의 가격인상을 대비해 대리점 및 딜러들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등 현물시장의 가격인상의 파장을 줄여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인해 94년에는 대리점을 통해 직접 공급받고 있는 몇몇 대규모 수요처들만이 이산화티타늄의 가격인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5년에는 이산화티타늄의 가격인상 여파가 서서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현물시장에 확보돼 있던 물량이 95년에는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이며, 가격도 톤당 2300달러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상황과 톤당 2700달러선을 넘어설 경우 중기업정도의 외국 메이커들이 앞다퉈 신규투자를 통한 증설을 대대적으로 감행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메이저들의 수출회복과 가격안정화정책이 조기 가시화될 가능성도 충분해 전망은 다소 불투명한 실정이다.

94년 세계 이산화티타늄 수요는 300만톤을 상회, 93년대비 3.5%이상 신장했다.

94년 세계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북미시장의 빠른 회복이다. 93년까지 침체돼 있던 미국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미국공장들의 가동률이 9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남아시아 및 기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산화티타늄의 가격인상 및 공급부족현상은 그동안 미국의 불황으로 동남아로 돌려졌던 물량이 다시 미국으로 선회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94년말 기준 세계 공급 여유량은 60만톤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물량은 선적기간과 운송기간 등을 포함해 50만톤의 재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10만톤의 여유에 불과한 물량이다.

더욱이 93년 Dupont 대만공장의 6만톤 증설을 계기로 Dupont과 Tioxide가 97년까지 각각 18만톤, 11만톤정도의 증설을 발표하고 있으며, SCM도 96년 상반기까지 5만2000톤 증설을 계획하고 있긴 하지만 3년동안의 수요증가분의 해소에도 부족할 것으로 보여 97년이후 공급부족현상을 뒷바침하고 있다.

이산화티타늄은 북미, 유럽, 아시아 3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현재 총생산능력은 372만톤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140만5000톤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127만6000톤으로 34%, 아시아가 38만톤 10.2%, 일본 34만4000톤 9.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